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역음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의 전통 무예를 만나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역음

차례

서문	004
01 2019 열린학교, 카포에이라의 무형유산 가치 전승	013
02 베트남 전통무예 박호의 도전	027
03 현대 일본의 지역, 국가, 국제 정체성 사이의 오키나와 가라테	042
04 하코쿠 유검도 연맹으로 본 브라질의 유도	059
05 중앙아시아 전통 레슬링	074
06 인도 케랄라주의 전통무예, 칼라리파야트	087
07 레온 사람, 레온 품성이 레온식 레슬링으로 나타나다	102
08 고대 상인 문화가 만든 중국 산시성의 심의권과 형의권	120
09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가는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133
10 무예, 만남과 화해의 근본적 가치	148
11 선사스페인 시대 문화유산으로 통하는 관문, 멕시코 무예 실람	165
12 미얀마 타잉	183
13 닐라이칼라키 실람밤	202
14 올드 폴란드 사브르 펜싱	218
15 전통춤과 무예에 나타난 한국 신체문화의 보존	237
16 중국 마을의 종교 의례와 무예 수련	254
17 싱가포르의 말레이 무형유산 펜카실랏	268
18 태권도에 평화 연구 패러다임을	283
19 토착무예: 문화, 연속성, 투쟁	300

03

현대 일본의
지역, 국가, 국제 정체성 사이의
오키나와 가라테

에두아르도 곤잘레즈 드 라푸엔테 Eduardo Gonzalez de la Fuente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

안드레아스 니에하우스 Andreas Niehaus
벨기에 겐트대학교

가라테, 오키나와섬에서 시작되다

일반적으로 가라테는 오키나와섬에서 발달한 일본 전통무예로 여겨진다. 오키나와는 1879년까지 독립국가 류큐 왕국(1429~1879)으로, 일본, 중국, 한국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외교, 문화, 경제적 관계를 맺고 이들 국가와 중계 무역으로 번성했다. '손(tī/te)' 또는 '중국 손(tōdi/tōde)'으로 알려진 가라테는 오키나와의 토착 격투 체계와 중국 및 아시아 여러 지역의 무술, 세계관, 민속 정신이 오키나와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만들어졌다. 현재의 가라테는 무기 없이 주먹과 발차기를 사용하는 무예이다. 오키나와현에서는 가라테의 역사, 사회, 문화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1990년대부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가라테는 2021년에 도쿄올림픽 전시 종목으로도 데뷔할 예정이다. 세계가라테연맹 WKF, World Karate Federation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이 가라테를 수련한다. 가라테는 스포츠 종목으로서 면모를 훌쩍 뛰어넘어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문화 아이콘으로, 세계 스포츠 문화의 일부가 되어 일본의 문화 수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가라테의 스포츠화와 군사화

1879년, 오키나와는 일본에 병합되어 오키나와현이 되었다. 그리고 쇼토칸 가라테의 창시자인 후나코시 기친(1868~1957)이 20세기 초에 오키



1937년 슈리성에서 슈리시 초등학교 남녀학생들의 가라테 시연
 ©공수도대관(空手道大觀), 1938. 나가소네 겐와

나와 가라테를 일본 본토에 소개했다. 후나코시는 1916년 교토 무덕전(武徳殿)에서 가라테를 선보이고 1922년 도쿄에서 열린 최초의 체육 시연회에 초청받아 가라테를 연행했다. 이듬해 후나코시는 일본 본토의 학교와 대학 등에서 가라테를 대중화하는 데 성공한다(Bittmann, 1999). 그러나 일본에 소개된 가라테는 다른 현대화

된 일본 스포츠 무예, 특히 유도과 검도의 영향을 받아 스포츠화 및 군사화 과정을 거친다(Nakatani 외., 2008). 가라테의 무예와 철학이 20세기 초 일본 본토의 정치, 문화, 이념의 틀에 맞추어 변형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일본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일본의 무예, 스포츠, 체육교육은 전국적으로 획일화(Gleichschaltung) 정책 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충성스럽고 애국적인 시민을 양성하고, 불굴의 투지를 가진 병역을 준비시키는 도구로 활용되었다(Abe 외., 1992; Bennett, 2013).

패턴 운동인 ‘가타’에 중점을 두었던 가라테는 점점 더 스파링 경기인 ‘구미테’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순위 및 점수 체계와 수련 전 명상 과정이 생겨나고 오키나와에서 일상복을 입고 수련하던 것과는 달리 흰색의 훈련복이 도입되는 등 가라테는 의례화되고 공식화되었다. 수련 전에 도장의 규칙을 읽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개인 수련은 형식 및 명령 체계를 갖춘 단체 수련으로 바뀌었다. 기술이 표준화되고 학교와 대학의 체육 교육에 적합한 스포츠로 만들기 위해 수련생에게 잠재적으로 해가 될지도 모르는 기술은 사라졌다. 마침내 가라테는 1901년에 오키나와의 학교 교과과정에 도입되었다.

1920년대 후반에 후나코시 기친은 가라테의 표기를 ‘중국 손’이라는

의미의 당수(唐手)에서 ‘빈손’이라는 의미의 공수(空手)로 변경하고 ‘도(道)’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수라는 용어는 초모하나 시로가 1905년 자신의 가라테 대련을 언급하며 최초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재창조된 가라테는 현대 일본 무예 ‘전통’에 좀 더 가까워졌다. 변경된 명칭은 가라테의 주요 기술적 특징을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무예’로 묘사하고, 불교 철학 및 ‘도’로 정의되는 다른 일본 예술 형식과 가라테 사이에 연결 고리를 확립했다. 그러나 중국(당)이라는 글자를 변경한 것은, 가라테의 대중화를 방해한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 젊은이들의 반중국 정서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으며 정치적, 이념적 시대정신을 고려한 것이었다(『류큐 신보』, 1936; Bittmann, 2017). 일본의 1895년 이후 모든 무술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시킨 대일본무덕회(大日本武徳会)에서 1933년에 가라테를 일본 무술로 인정했다(Gainty, 2013). 가라테의 일본화가 본토에서 창시된 스타일(예: 쇼토칸)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역효과로 오키나와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1936년(제2차 증일전쟁 발발 전년도)에는 가라테도(공수도)라는 용어의 사용이 결정되었다. 가라테의 일본화는 오키나와 문화를 단일 국가 일본의 문화적 틀에 동화시키는 정치적 목적 또한 달성시켰다.

가라테의 세계화

20세기에 가라테가 서양으로 전파되며 가라테의 세계화가 나타났다. 첫 시작은 하와이와 남미로 이주한 일본인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주로 미군이 전파의 주역이었다. 전쟁 이전에는 야부 켄츠(1866~1937), 미야기 초준(1888~1953), 키안 초토쿠(1870~1945) 같은 유명한 오키나와 가라테 사범들이 해외로 나가 가라테를 선보이고 가르쳤다. 그러나 가라테가 세계화를 통해 다른 나라에 자리를 잡은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한국에서는 1940년대 일본 대학에서 유학한 사람들을 통해 전파되기 시작했다. 많은 학원에서 가라테를 한국식으로 표기하여 당수도(중국/손/길) 또는 공수도(빈/손/길)라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1959년에 생겨난 태권도(발/주먹/길)의 전신이 되었다. 한국의 주요 가라테 단체들은 한국형 가라테에 일본식 이름이 아닌 한국식 표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한국태권도협회’를 결성했다. 대만에서는 1960년대 중반에 가라테가 상당한 인기를 얻어 1973년에 ‘대만 가라테도연맹’(Orr & Amae, 2016)이 설립되었다. 1960년대에는 호주에서도 가라테가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1950년대 후반에는 아프리카와 중동으로도 퍼져나갔다. 유럽에서는 주로 앙리 뿌리(1923~2014)의 노력과 그의 ‘프랑스가라테클럽’(1955)을 통해 가라테가 확산되었고, 1965년에 ‘유럽가라테연맹’이 설립되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을 중심으로 북미 대륙에서도 1960년대에 가라테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오키나와와 일본에 주둔한 군인을 통해 가라테가 대중화되었다. 일본가라테협회를 공동 창립한 니시야마 히데타카(1928~2008)는 몇 해 동안 미군을 가르치다 1961년 캘리포니아에 정착하여 일본 외 지역에서 가라테를 홍보하는 주요 인물이 되었다(Benesch, 2020). 이처럼 미국의 오키나와 점령 당시 미군과 오키나와 가라테 사범들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며 가라테가 전파되었다.

종전 후 일본에서는 “점령 당국에 의해 무예 수련에 참가하는 일이 대부분 금지되었다(Bennett, 2013).” 무예의 연행과 이념 및 철학이 파시스트 이데올로기 확산과 일본 사회의 군사화에 기여하는 적극적 도구로 보였기 때문이다. 1940년대 후반, 가라테를 포함한 무예 훈련이 재개되었을 때, 무예는 군국주의적 과거를 버리고 스포츠로 재창조되었다. 이러한 재창조는 가라테가 세계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전쟁 후에는 전쟁 이전 가라테의 모습을 수용하고 현대 격투스포츠의 흐름을

따르며 더욱 발전했다.

가라테 같은 문화유산이 세계화될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은 동질화이다. 지역 또는 국가 차원에서는 문화적 관습의 정의 및 연행과 관련하여 소유권과 통제를 잃어가고, 국제적 차원에서는 연행, 철학, 등급, 체계에서 국제적 동질성을 만들어낸다. 오늘날에는 세계가라테연맹이나 올림픽위원회IOC 같은 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가라테의 지식과 연행이 무엇인지를 정의한다. 동질화 과정의 또 다른 효과는 단순화와 배제이다. 2016년 올림픽 집행위원회는 2020 도쿄올림픽 종목에 가라테를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 가라테는 세계가라테연맹 내에서 시행되는 가라테 스타일만을 지칭했다. 세계가라테연맹은 고주류, 시토류, 쇼토칸, 와도류 4가지 스타일의 가타만 인정했다. 오늘날 일본과 오키나와에 등록된 가라테 스타일은 20개가 넘는다.

역설적으로 세계화 과정은 동질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분열과 지역화로 이어진다(Bowman, 2010). 세계화는 소유, 소속, 정체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문화적 변용, 전유 및 세계화된 문화 관습은 종종 국제, 국가, 지방, 지역 차원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얽히게 된다. 가라테가 초기 형태에서 벗어나 국제 스포츠로 발전하며 세계화, 스포츠화, 상품화 되어갔다. 한편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키나와에서는 영적이고 ‘진짜’ 경험에 대한 현대의 갈망과 탐색에 부응하는 가라테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대의 가라테보다 정통 가라테를 재구성하고, 발견하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 향수와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서의 오키나와가라테

국가와 지방 정부는 무예와 같은 문화 관습이 공동의 문화유산으로서

국민을 단결시키고 국가와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세계에 전파하는 소프트 파워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깨달았다. 오키나와 정부는 가라테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가라테를 무형유산의 독특한 사례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정책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가라테 공동체에서 시작되어 위로 전달되는 상향식 움직임이기보다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오키나와현의 독특한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하향식 정치 행위이다. 오키나와 가라테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복합 계획은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내각 정책에 의해 일본 정부 내에서 행정적으로 조직되었다. 가라테는 일본 지적 재산과 관련한 ‘쿨 재팬 Cool Japan’ 브랜드 전략의 일부이다

가라테의 경제적 잠재력을 깨달은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은 지역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 일본 시민과 외국 가라테 관광객이 오키나와를 매력적인 ‘가라테의 성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총 1,188명의 외국인(미국인 38.2%, 호주인 21.1%, 프랑스인 17.1%)이 오키나와를 방문해 가라테를 체험했다. 오키나와 가라테 도장 중 31.5%는 일본 외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 회원의 비율은 37.4%이다(오키나와현, 2019). 가라테는 광범위한 관광정책으로 통합되어, 이 오키나와 무형유산이 하와이 같은 아열대 섬의 해변 휴양지의 이미지와 연결되기도 했다(Figal, 2008).

가라테를 무형유산으로 공식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으로 일본은 1997년에 국가유산법에 따라 가라테와 고^고무술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그해, 마쓰바야시류의 나가미네 쇼신(1907~1997), 고주류의 야기 메이토쿠(1912~2003), 우에치류의 이토카즈 세이키(1915~2006), 총 3명의 가라테 사범을 ‘가라테와 고무술 분야 무형문화재’로 최초 지정했다. 2000년에는 가라테 역사와 오키나와 유산으로서의 가라테 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슈리성, 시키나엔 정원 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6명의 가라테 사범이 무형문화재로 추가 지정되었다.

그 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가라테를 공식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보존, 홍보, 전파할 목적으로 여러 조직을 설립해 중앙집중형 인프라를 구축했다. 오키나와 출신의 유명한 가라테 사범 6명이 가라테도라는 용어를 채택하겠다고 밝힌 날짜가 1935년 10월 25일인 것에 착안하여 2005년 10월 25일을 '가라테의 날'로 지정했다(『류큐 신보』, 1936). '가라테의 날'은 가라테 역사와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2014년 '가라테의 날'에 오키나와 정부는 가라테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목표를 위해 2016년에는 두 개의 기관을 추가로 설치했다. 오키나와현 지정 무형문화재 '오키나와 가라테와 고무술' 보존 학회와 지역 가라테 네트워크 정책을 기획하는 가라테 진흥과가 그것이다. 가라테 진흥과에는 "오키나와 가라테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임무가 주어졌다(『류큐 신보』,

'가라테의 날을 위한 100개의 가타', 오키나와 도미구스쿠시 추라산 해변에서 2016년 가라테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개별 연례행사 ©크리스 윌슨



2016). 가라테 등재신청을 위한 가장 확실한 상징은 2017년 문을 연 ‘오키나와 가라테회관’으로, 박물관과 오키나와 가라테정보센터OKIC도 통합될 예정이었다. 전 세계 가라테 공동체의 관심을 끌고 ‘순례지’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오키나와 가라테회관’은 그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오키나와 가라테를 고유한 문화로 보존, 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일본 국내외의 사람들에게 오키나와가 가라테의 발상지임을 알린다. 누구나 가라테의 본질을 배울 수 있는 장소이다.” 동시에 이 회관은 “가라테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류큐 신보』, 2017).

오키나와현의 정책은 지역 가라테 사범과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오키나와 가라테 내에서 여러 학파와 스타일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단일화하려고 노력한다. 현재 오키나와 정부는 가라테의 3가지 주류 전통인 쇼린류, 고주류, 우에치류와 11개의 비주류 전통 및 고무술 스타일을 인정한다. 여기에서 105개의 학파와 분파가 생겨났으며 오키나와에만 총 350에서 400개의 도장이 존재한다(OKIC, 2020). 수많은 가라테 스타일과 학파는 서로 다른 규칙, 기술, 가타를 가지고 있으며, 정당

성과 정통성 측면에서 일본 본토 스타일 및 학파들과 경쟁한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유네스코 등재신청을 하려면 오키나와와 일본 가라테 이해관계자들이 ‘전통’ 가라테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일본 정부의 무형유산 국가목록 등재에 합의해야 한다. 가라테의 지역적 정의와 이해관계 및 규범은 국가 차원의 정의, 이해관계, 규범과는 차이가 있어 상충한다. 가라테는 국가 차원에서 일본 전통의 일부이며, 오키나와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일본 본토와 동일하다. 그러나 오키나와현의 발의안에서는 오키나와와 일본



2016년 10월 23일 나하의 고쿠사이 거리에서 3,973 명이 가라테 가타를 시연하여 기네스 세계기록을 세움. 이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 ©크리스 윌슨



가라테회관 부지에 보존된 오키나와 고유의 카메오-바카(거북이등) 무덤. 가족과 조상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며 오키나와에 널리 퍼져 있는 문화 ©에두아르도 곤잘레스 드 라 푸엔테

본토의 가라테를 분명히 구분한다. 나카하라 노부유키 전 일본가라테협회 회장은 2017년 ‘오키나와 전통 가라테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회의’에서, 오키나와 가라테는 오키나와의 특정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발달했고 일본 전통 가라테는 무사도 전통 내에서 발달했다고 말했다(OKIC, 2017). 일본 가라테를 무사도 이념에 뿌리를 둔 것으로 접근하는 방식에는, 가라테를 연행만이 아닌 이념적 차원에서 확고하게 일본의 무예 전통으로 바라보는 국가 차원의 경향성이 반영되어 있다.

이 회의에서 일본가라테협회의 전 임원이자 1999년에서 2009년까지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지낸 마츠우라 코이치로는 성공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면 오키나와 가라테 이해관계자와 일본 정부 및 무형유산 국가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츠우라는 2003년 무형유산협약이 자신의 임기에 조성되고 승인되었음을 상기하며 일본이 무형유산 관련 유네스코 담론에 큰 영향을 미친 증거라고 말했다(Akagawa, 2016). 마츠우라는 가라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이 시급하다고 표명했다. 첫째, 전통적인 오키나와 가라테가 스포츠 가라테



오키나와 거리축제에서 공연하는 가라테 어린이 수련생 ©미겔 앙헬 헤갈라도 에스포지토

및 국제 가라테의 시행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오키나와가 가라테의 발상지임을 보여주는 검증 가능한 역사적 증거를 구축해야 한다.

오키나와 가라테와 일본 본토 가라테를 통합하고, 오키나와가 가라테의 발생지라는 사실을 공적 영역에서 이해시키는 일은 성공적인 유

네스코 무형유산 등재신청에 있어 중요한 일이다. 오키나와현이 제작한 2018년 시각 자료에 따르면, 오키나와 주민의 96%는 ‘오키나와가 가라테의 발상지이다’라고 인식하는 반면, 일본 본토의 경우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민은 전체의 34%에 그쳤다(오키나와현, 2018). 그러나 『재팬타임즈』의 2018년 5월 11일자 기사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사람들이 오키나와가 가라테의 발상지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하는 반면, 가라테의 보존과 홍보의 필요성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유네스코 협약에서는, 무형유산이 되려면 공동체와 집단이 해당 문화유산을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식해야 하고 이들에게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UNESCO, 2018). 따라서 먼저 오키나와인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유네스코에 무예 관련 범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사회적 관습, 의례 및 축제 행사’를 목표로 가라테의 유네스코 등재 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다. 이에 따라 2019년 설립된 가라테 전문가 위원회는 ‘의례’를 주요 키워드로 하고, ‘평화의 정신, 오키나와 가라테 의례를 유네스코의 링에 묶다’라는 슬로건을 발표했다(『류큐 신보』, 2019). 이 ‘가라테 의례’는 오키나와 문화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표현과 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라테를 오키나와 전통



나하 줄다리기 대축제의 전통 가라테 시연 ©크리스 윌슨

의례와 축제에 있어 불가분의 요소로 구체화한다면 무형유산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줄다리기, 보트 경주, 사자춤 같은 민속 축제와 묘소 및 기념비 등의 영적 공간에서 자주 공연되는 가라테는 특정 하위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키나와의 유물과 무형문화를 활용하는 문화유산이다.

하나의 기원, 두 개의 전통, 하나의 국가유산이 되다

20세기 초에 나타난 가라테의 변형은 일반적으로 일본화 과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현대화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가라테는 스포츠화, 군사화, 표준화 과정을 거쳤으며, 이로 인해 가라테를 학교, 대학, 군대 등에서 대규모로 가르칠 수 있었다. 역으로 이러한 변형이 오키나와 가라테의 수련 방법과 정의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 과정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때가 많다. 가타를 핵심으로 하는 자기방어 체계인 '전통' 가라테는 사라지고 일종의 의례 공연인 현대의 격투(구미테)



무형문화재이자 오키나와 쇼린류 가라테 10단 유단자 세이키치 이하 사범의 '도카치(88세 생일을 기념하는 오키나와의 장수 축하 행사)'를 기념하여 슈리성에서 유학생들의 가라테 시연 ©크리스 윌슨

스포츠가 등장했다.

일본과 오키나와의 이중 문화재라는 측면으로 인해 가라테를 둘러싼 논쟁에는 항상 긴장감이 존재한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공식 인정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가라테의 역사적 뿌리, 파급력, 의미 등과 관련하여 이러한 논쟁이 재소환되고 있다. 공식적인 전략대로 일본을 '쿨'한 국가로 브랜드화하려면 일본은 오키나와 가라테 전통을 인정하고 지원해야만 한다. 그 결과, 이러한 복잡한 시각 안에 하나의 기원(오키나와), 두 개의 '전통'(오키나와 가라테와 일본 가라테), 하나의 국가 유산(가라테 전체)이 존재하게 되었다.

가라테가 유네스코에 성공적으로 등재되려면, 가라테의 활성화와 오키나와 의례의 재설정, 즉 다른 오키나와 고유의 의례들과 가라테의 관련성을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듯하다.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유네스코 등재를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합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가라테를 무형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제도적, 전승적, 담론적 실천이 있었다. 이러한 지역 활동은 오키나와 가라테의 모습을 이미 크게 바꾸어 놓았다. 오키나와 정부의 장기적 비전이 지역 가라테 공동체와 향후 가라테에 대한 이해와 수련 방식을 얼마나 바꾸어 놓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가라테는 그 자체로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고 시간, 지리, 정치의 경계를 초월하는 서사가 담긴 유산이다. 오키나와 가라테는 여전히 과거와 관련한 현대의 주장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오키나와와 일본의 관계에 대한 규범론적 담론과 일치할 수도, 상충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등재가 오키나와에 가져올 상징적 중요성으로 인해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려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문화 자원이 무형유산으로 지정됨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지원과 이해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광 관련 수익을 늘리는 요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세계화의 맥락에서 무형문화는 사회와 경제 영역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키나와와 일본의 많은 공적, 사적 관계자들은 가라테의 잠재력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가라테는 오키나와의 지역 무형유산 활성화 과정의 일부인 동시에 일본 본토의 국가 정책에 의해 진행된다. 이러한 하향식 관리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에 있어 가라테는 역사적 연속성, 정체성, 도덕적 가치, 자기 인식, 다양성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고 전파하는 귀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보존된 이러한 지식과 기술이 무예로서의 가라테를 통해서만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소수집단 문화의 일부로서 통합적 관점을 보여주고, 무형유산인 무예를 통해 다른 여러 지역과 대화하는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가라테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Akagawa, N. (2016). "Intangible heritage and embodiment: Japan's influence on global heritage discourse." In W. Logan, M. N. Craith, and U. Kockel (eds), *A Companion to Heritage Studies*, pp. 69–86.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Abe, I., Kiyohara, Y., and Nakajima, K. (1992). "Fascism, sport and society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9(1), 1–25.
- Bennett, A. (2013). "A reconsideration of the Dai-Nippon Butokukai in the purge of ultra-nationalism and militarism in post-war Japan." *Kokusbikan Daigaku Butoku Kiyō*, 29, 73–82.
- Bittmann, H. (1999). *Karatedō. Der Weg der leeren Hand. Meister der vier großen Schulrichtungen und ihre Lehre*. Ludwigsburg, Kanazawa: Heiko Bittmann Verlag.
- Bittmann, H. (2017). *Geschichte und Lehre des Karatedō*. Ludwigsburg, Kanazawa: Heiko Bittmann Verlag.
- Benesch, O. (2020). "Olympic samurai: Japanese martial arts between sports and self-cultivation." *Sport in History*, 40(3), 1–28.
- Bowman, P. (2010). "The globalization of martial arts." In T. A. Green and J. Svinth (eds), *Martial Arts of the World: An Encyclopedia of History and Innovation*, pp. 435–520. Santa Barbara: ABC-CLIO.
- Daliot-Bul, M. (2009). "Japan brand strategy: the taming of 'Cool Japan' and the challenges of cultural planning in a postmodern age."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12(2), 247–266.
- Figal, G. (2008). "Between war and tropics: heritage tourism in postwar Okinawa." *Public Historian*, 30(2), 83–107.
- Gainty, D. (2013). *Martial Arts and the Body Politic in Meiji Japan*. Oxon, New York: Routledge.
- Johnson, N. C. G. (2012). "The Japanization of karate? Placing an intangible cultural practice." *Journal of Contemporary Anthropology*, 3(1), 61–78.
- Madis, E. (2003). "The evolution of taekwondo from karate." In T. A. Green and J. Svinth (eds), *Martial Arts in the Modern World*, pp. 185–208. Westport: Praeger.
- Moening, U. and Kim, M. H. (2016). "The invention of taekwondo tradition, 1945–1972: when mythology becomes 'history'." *Acta Koreana*, 19(2), 131–164.
- Nakatani, Y., Miyamoto, T., et al. (2007). "Karatedō no hatten ni okeru chiikiteki 2 jikusei: Okinawato hondo."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Health and Physical*

Science, 25, 27–65.

- Nakatani, Y., Miyamoto, T., et al. (2008). “Karatedō kindai-ka no tokuchō: jūdō to no hikaku ni okeru kōsatsu.”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Health and Physical Science*, 26, 25–44.
- OKIC (Okinawa Karate Information Center) (n.d.). List of dōjō in Okinawa. [Online] Available at <http://okic.okinawa/en/dojo> (accessed June 23, 2020).
- OKIC (2017). Towards the registration of traditional Okinawa karate with the UNESCO. [Online] Available at <http://okic.okinawa/wp-content/uploads/2017/09/16506e5b026a318a8cd3054460ffc150-1.pdf> (accessed June 30, 2020).
- OKIC (2020). Okinawa Karate World Map. [Online] Available at <http://okic.okinawa/wp-content/uploads/2020/06/chizu-e-6.25.pdf> (accessed July 12, 2020).
- Okinawa Karate Kaikan (n.d.). About the facilities. [Online] Available at <http://karatekaikan.jp/en/about/> (accessed June 19, 2020).
- Okinawa-ken (2018). Okinawa Karate Shinkō Bijon (2018 nendo – 2032 nendo). [Online] Available at www.pref.okinawa.jp/site/bunka-sports/karate/documents/vision2.pdf (accessed May 16, 2020).
- Okinawa-ken (2019). Okinawa Karate Shinkō Bijon: Rōdo Mappu. Dai ikki: 2018 nendo – 2022 nendo. [Online] Available at www.pref.okinawa.jp/site/bunka-sports/karate/documents/rm-honpen.pdf (accessed May 16, 2020).
- Okinawan Prefectural Government (2017). *空手発祥の地沖縄* [Okinawa, the Birthplace of Karate]. Naha: Ikemiya Shokai Ltd.
- Orr, M. and Amae, Y. (2016). “Karate in Taiwan and South Korea: a tale of two postcolonial societies.” *Taiwan in Comparative Perspective*, 6, 1–16.
- Ryūkyū Shimpō* (1936). “Meishō wo ‘Karate’ ni tōitsu shi—Shinkōkai wo kessei.” October 26.
- Ryūkyū Shimpō* (2016). “Okinawa Prefectural Government to form new division to promote karate.” [Online] February 12. Available at <http://english.ryukyushimpo.jp/2016/02/20/24553/> (accessed May 25, 2020).
- Ryūkyū Shimpō* (2017). “Dawn of new era of Okinawa Karate, celebrated by 700 people with opening of new facility.” [Online] March 5. Available at <http://english.ryukyushimpo.jp/2017/03/11/26600/> (accessed June 11, 2020).
- Ryūkyū Shimpō* (2019). “Committee formed in order to inscribe Okinawa karate on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Asset List.” [Online] July 11. Available at <http://english.ryukyushimpo.jp/2019/07/20/30757/> (accessed July 4, 2020).
- Tan, K. S. Y. (2004). “Constructing a martial tradition: rethinking a popular history

- of karate-dou."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8(2), 169–192.
- UNESCO (2018). *Basic Texts of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is: UNESCO.
- Valaskivi, K. (2013). "A brand new future? Cool Japan and the social imaginary of the branded nation." *Japan Forum*, 25(4), 485–504.
- World Karate Federation (2014). *The Book*. [Online] Available at www.wkf.net/thebook/ (accessed May 3, 2020).

추가 문헌

- Cang, V. G. (2007). "Defin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stakeholders: the case of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Studies*, 2, 45–56.
- Foster, M. D. (2011). "The UNESCO effect: confidence, defamiliarization, and a new element in the discourse on a Japanese island." *Journal of Folklore Research*, 48(1), 63–107.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발행일 2020년 12월 24일

펴낸이 금기형, 박창현

펴낸곳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책임편집 박성용, 류석열

기획·편집 박규리, 장연석, 이강혁, Nanoï Lauwaert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우)55101

충청북도 충주시 옷갓길 73 (우)27438

제작 도서출판 학교재

ISBN 979-11-91300-01-7 93380

본 도서에 포함된 견해는 저자의 것으로 발행기관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8개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함께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 분야 최초의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국제기구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형유산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인식 제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무형유산은 문화다양성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이다. 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관 및 공동체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무형유산의 가치와 경험을 공유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는 2016년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국제기구이다.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는 무예의 철학과 가치를 전파하고 무예를 통해 청소년의 교육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켜 건강한 문화, 소통의 문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센터는 무예 연구 및 지식 공유, 무예 역량 강화, 선진국-개도국 협력, 무예 정보의 축적과 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